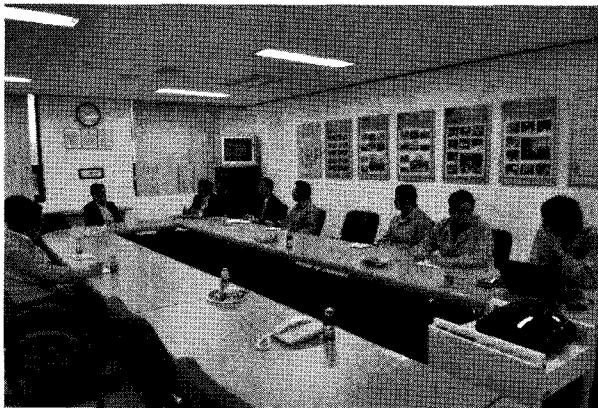




협회장 동정

● 충북, 호남지역 회원사 방문



▲ 사진은 조남조 회장이 회원사를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과 축산
· 사료산업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 제3, 4차 이사회 개최

지난 3월 22일과 4월 26일 제3, 4차 이사회를 각각 열고 구제역 종식 이후의 대응방안 등 산적한 업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 제4회 사슴데이 행사 참석



▲ 사슴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조남조 회장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지난 4월 21일과 4월 28~29일 각각 충북지역 4개 회원사와 호남지역 8개 회원사를 차례로 방문하여 구제역으로 인해 사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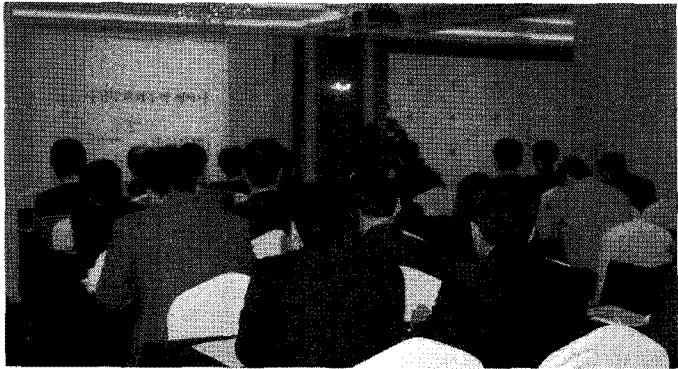
조남조 회장은 앞으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전체 회원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 한국양록협회 주최로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된 ‘제4회 사슴데이(4월 3일)’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시작을 알리는 케이프 커팅 후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사연동정

● 2011 미산 탈피대두박 세미나 참석



지난 4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대두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사료협회가 후원하여 개최된 ‘2011 미산 탈피대두박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념축사를 한 후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청정축산운동 선포식 참석



지난 3월 24일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된 ‘청정축산운동 선포식’에 참석하여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협회동정

● 제1차 사료산업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 본회 조남조 회장(오른쪽)이 백인기 중앙대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본회 사료산업연구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양창근)는 지난 4월 5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금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제역 관련 사항 등 업계 주요 현안들을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 했다.

● 자매결연 마을 농촌일손돕기 실시



▲ 배수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협동정

본회는 지난 4월 29일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평창군 응암리 매화마을(이장 지준태)을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협회는 이날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크게 모자라는 매화마을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배수로 보수작업 및 둘레길, 강변 등 마을 주변을 청소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매화마을은 가구수 30여호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본회는 지난 2005년도에 이곳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봄, 가을 농번기 철마다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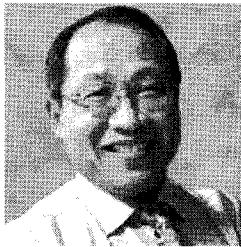
● 2/4분기 직원 조회



본회는 지난 4월 1일 아침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2/4분기 직원 조회를 갖고 임직원간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남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제역과 국제 사료원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우리 회원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해쳐 나가자”고 말했다.

● CJ제일제당(주) 대표이사 변경



CJ제일제당(주)은 지난 3월 28일부로 김홍창씨(사진)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 (주)나람

나람사료 50만톤 판매 돌파!



(주)나람사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31일로 배합사료판매량 50만톤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품질로! 기술로! 미래로!의 구호처럼 ‘고객 성공 최우선 가치’의 결실을 맺어 나람사료 2005년 8월 8일 첫 출시 이래 누적판매량 50만톤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축산환경 속에서 이뤄져 나람사료의 저력을 다시한번 실감케 하는 결실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구한 노력에 고객들이 성원해 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나람사료’의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업계의 큰 시련을 가져온 구제역 파동 및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돼지고기 및 소고기 수입 급증으로 사료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만톤의 물량을 판매하는 기염을 토해 나람사료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이범호 대표이사가 지난해 초 부임하면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양축농가에 대한 컨설팅강화에 두고 대한민국 대표 사료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직원 등이 창조경영과 도전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료 값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성을 쏟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양축농가와의 밀착도가 강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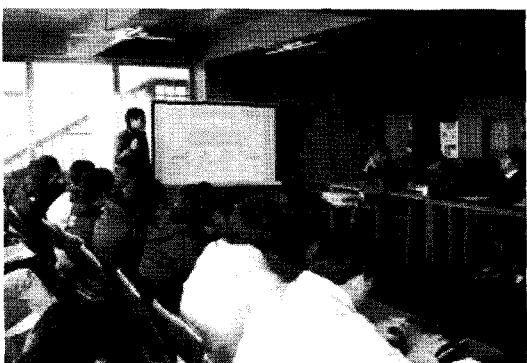
나람사료는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도 HACCP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최고의 사료를 생산 적기에 공급 축산농가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최우선에 둘 계획이다.

한편 이범호 대표이사는 부임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자녀 및 본인 대학학자금 지원과 매월 전 직원 책한권 읽기 매주 대표이사의 직원 소양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 특별상여금 지급과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창사이래 최초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 되기를 바라면서 2011년 4월 8일 양돈협회에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으로 5백만원을 기탁했다. 고객에게 만족을 종업원에게 자부심을 투자자에게 기쁨을 사회적 책임완수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미래를 행복으로 채워 드리는 기업으로 성장될 것이다.

●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컨설팅 사업본부 외부 워크숍 개최



▲ 컨설팅 사업본부 워크숍 중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



▲ 매주 월요일 본부단위로 정기 시행되는 농장 컨설팅 사례 분석 및 토론 컨퍼런스

대한민국 축산업의 수익파트너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 강화군 소재 고벵이 펜션에서 ‘컨설팅 사업본부 외부 워크숍’을 실시했다.

컨설턴트(Farm Consultant)의 활동능력을 배가하고 농장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및 상호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워크숍은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단합 및 화합을 다지는 조별 경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명확한 타깃농장 컨설팅 추진계획 제시 및 우수한 컨설팅 실적을 거둔 FC 2명의 컨퍼런스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컨퍼런스(Conference)는 컨설턴트 개개인이 고객 농가 활동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고 토론 및 코칭하는 회의체로 매주 월요일마다 (16명의) 컨설턴트가 전원 참석한다. 컨설팅 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비슷한 케이스에 참고·적용하는 등 생생한 현장중심 지식의 보고이자 트루라이프만의 노하우가 결집된 지식시스템인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컨설팅본부 황신호 이사는 “그동안 고객 농가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힘쓴 FC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앞으로도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고객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고 생산성 달성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루라이프 농장 컨설턴트는 단순한 사료판매가 아닌, 농장을 직접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컨설팅하여 고객 농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16명의 컨설턴트가 책임 보증하는 (주)트루라이프 농장경영컨설팅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전화 : 032-527-6913~4)

● (주)우성사료

축우 신제품 트러블슈트(Trouble Suit) 출시

(주)우성사료가 최근 2011년 축우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최근 구제역 백신과 이동제한으로 인한 밀사, 분뇨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로 반추가축이 고도의 스트레스에 따른 다양한 트러블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



위기에 봉착한 축우 산업의 활로 모색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제품의 특성,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우성사료 이재규 부장(축우PM)은 “2011년은 기억조차 싫은 악몽 같은 구제역 백신, 이동제한에 따른 밀사



스트레스, 번식문제 및 어려운 분뇨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악조건에 노출된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생산성은 어느 해 못지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곡물생산량은 감소해 곡물 애그플레이션 재발의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 비준안을 올해 국회에 상정하는 등, 첨첨산중의 악재들이 어려운 축산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축산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지혜는 바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추위 원동력을 위한 트러블 슈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추가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기 장애와 대사성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대사성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과 항병력을 높인다면 자연적으로 생산성은 개선될 것이다. 반추가축의 원동력은 반추위인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트러블, 이러한 현실속에서 축우사료의 선두 주자 우성사료가 고급원료를 기용하여 반추위 미생물증폭 및 효율증진을 기본 테마로 간기능을 개선하여, 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과 항병력을 증강 시킬 수 있는 제품이 트러블 슈트를 개발했다.

〈제품의 특성〉



반추위 발효환경 개선 및 섭취량 증가

옥수수, 대두박 등 고급원료를 기용함으로써 원초적 영양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기호성을 개선하여 섭취량을 높였다. 반추위 미생물 증폭제와 효율 증진제를 특수 기용하여 반추위내 발효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면역증강 및 간기능, 대사 증진

면역력 증강, 바이러스 증식 억제, 반추미생물 성장촉진, 과산증 예방 및 불균형된 반추환경 정상화, 간기능 증진으로 강건한 축체를 만든다.

간기능 증진 및 번식효율 개선

반추위 관련 대사성 질병 예방, 소화기 장애 개선, 면역력 증진 및 대사 촉진, 소화기관 발달, 간기능 증진 및 번식효율 개선을 위해 탑드레싱 또는 전량 교체 급여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이번 신제품을 기획한 우성사료 이재규 부장은 “비온 뒤 땅은 굳어진다. 향후 새로운 축산 패러다임의 주인공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강조하며 우성사료가 그 목표를 위해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서울대와 기술연구소 설립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 체결



▲ 산학협력 양해각서에 사인한 양사대표(오른쪽부터 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사장, 서울대 오연현 총장)



▲ 산학협력 양해각서 사인식에 동참한 서울대와 카길애그리퓨리나 임직원

지난 4월 7일 (주)카길애그리퓨리나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첨단 생명과학 기술단지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기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산학협력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에 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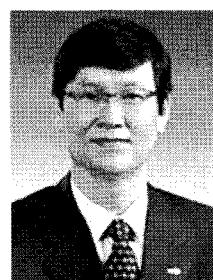
협력의 일환으로 카길은 28억원의 기금을 서울대에 출연하여,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내에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여할 것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는 카길 동물 영양사업부와 서울대의 실험 공간과 회의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이 연구소는 카길 아태지역 고객과 임직원 주요 교육 센터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서울대가 그린바이오 단지에 동물영양회사로 유일하게 카길을 유치한 것은 카길과 성공적인 산학 협력 역사의 증거이다. 이번 연구소는 카길과 서울대와의 연구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가 한국 축산 현장에 맞게 카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김태규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 소장은 밝혔다.

● (주)팜스코

정학상 대표, 모범납세자 관세청장상 수상

(주)팜스코의 정학상 대표(사진)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3일 충주세관에서 모범납세자로 관세청장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팜스코가 성실하고 전전한 법 준수와 의무이행을 한 것과 더불어 정 대표의 경력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 것으로 팜스코 측은 설명했다.